

1 개요

이씨할망조상본은 제주 남성을 따라온 육지 여성이 죽은 뒤에 조상신으로 모시게 된 사정을 담은 신화이다.

김씨 할으방은 육지로 갔다가 주막에서 하룻밤 정분을 나눈 이씨 할망이 막무가내로 따르자 함께 제주로 왔는데 할망이 죽은 뒤에 조상으로 모시게 되었다.

2 내용

옛날 김씨 할으방이 과거보러 육지에 갔다가 주막에서 하룻밤 유숙하게 되었다. 날이 밝아 과거를 보기 위해 나오는데 주막에서 만난 이씨 할망이 할으방 뒤를 쫓았다. 할으방이 양반의 처지에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붙잡은 창옷셔를 털어버렸다. 이씨할망이 대홍단 저고리 고름을 잘라 버리니 김씨 할으방이 화를 내면서 할망을 제주도까지 데리고 왔다.

이듬해 이씨 할망은 병이 나서 죽었다. 김씨 할으방이 아파서 문점을 해보니, 이씨할망의 조화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씨 집안의 조상신으로 제향하게 되었다.

3 특징

이달춘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 전형적인 조상신본풀이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육지를 여행하던 제주 남성이 여인을 만나 정을 나누었으나 홀로 귀향하려고 하지만 여인이 끝내 따라와 죽어 조상신이 된다고 하였다.

4 핵심어

김씨 할으방, 육지, 과거, 이씨 할망, 양반, 조상신

5 원전 서지사항

이씨할망조상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